

## 조용필 노랫말 속 사회상과 문학적 표현

허영진(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1. 문제 제기
2. 역사적 순간의 기념
  - 2.1.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과 <돌아와요 부산항에>
  - 2.2. 제24회 서울올림픽과 <서울 서울 서울>
  - 2.3. 2002 한일월드컵과 <꿈의 아리랑>
3. 반독재와 민주화 열망
  - 3.1. 광주민주화운동과 <허공>, <생명>
  - 3.2. 6·10 민주항쟁과 <서울 1987년>
4. 정치·경제 현실과 시대 공감
  - 4.1. 정쟁(政爭)과 <一瞥(일성)>
  - 4.2. 변혁의 시대와 <친구의 아침>, <어느 날 귀로에서>
5. 맺음말

---

이 글은 ‘국민가수’라고 일컫는 조용필의 노래 가운데에서 사회성을 지닌 노랫말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가요에 반영된 사회상과 사회적 메시지의 표현 방식을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서울 서울 서울>, <꿈의 아리랑>은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노래였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일제강점에 의한 이산의 아픔과 민족 화합 그리고 통일의

염원을, <서울 서울 서울>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장소성에 주목하여 올림픽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상에 관한 우울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꿈의 아리랑>은 민족 수난사의 상징적인 민요 아리랑을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의 민족사가 대전환기를 맞이했음을 보여 준다. <허공>과 <생명>은 '1980년 서울의 봄'과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노래로 민주화와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서울 1987년>은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과 마침내 성취한 민주주의 사회의 개막을 노랫말로 삼는다. 정치권을 향한 성난 민심을 대변한 <일성>은 풍자적인 노랫말이 인상적이고,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사회상을 맞이한 중·장년층의 불안감과 소외감을 진솔하게 표현한 노래로 <친구의 아침>과 <어느 날 귀로에서>가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조용필의 노래 중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랫말이 상당수라는 것, 대중적 인지도에 비해서 노랫말을 주목하지 못한 점, 문학적 표현으로서 본뜻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그리고 조용필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어: 조용필, 대중가요, 노랫말, 사회상, 사회적 메시지, 문학적 표현

## 1. 문제 제기

이 글은 문학·사회적 관점에서 조용필 노랫말을 분석하여 대중가요에 반영된 사회상과 사회적 메시지의 표현 방식을 살펴본 것이다.

우리의 대중가요 노랫말에는 일제강점과 민족 독립, 동족상잔의 비극과 남북 분단, 정치사적 혼란 및 경제 발전상에 이르는 근·현대사의 빛과 그림자가 오롯이 각인되어 있다. 최근의 K-POP은 국제사회로까지 확장된 대(對)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대중가요는 우리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로서 사회 변화와 조응하므로 사회적 메시지에 관한 분석과 이해를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가수’라고 일컫는 조용필(趙容弼, 1950.3.21.~)의 노래 가운데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지닌 노랫말은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싱어송라이터 조용필이 들려준 음악 소리는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즉 시대를 앞서 나아간 대중 음악으로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성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반면 조용필의 목소리로 전해진 노랫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심지어 조용필은 사회성과 무관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조용필은 정규앨범을 기준으로 모두 189편의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창밖의 여자〉나 〈Bounce〉처럼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상당수 존재한다(허영진, 2020:15-21).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랫말이 적지 않아서 우리의 사회상을 살피는 데 일조한다. 물론 이러한 노랫말 가운데에서 상당수는 조용필이 창작하지 않은 것이고, 기성곡과 노랫말을 동시에 수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대중에게는 모두 조용필 노랫말로 인식될 따름이다. 무엇보다도 조용필이 신곡 제작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가운데 “가사를 거둬 수정한다”(홍호표, 2008: 76)는 사실은 노랫말 속 사회적 메시지를 주목하게 만든다. 특히 조용필이 방송매체를 통해 왕성히 활동한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은 ‘반독재’와 ‘민주화’라는 어젠다가 절대가치로 인식될 때였고, 콘서트 위주의 활동을 본격화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경제 위기’와 ‘사회 개혁’이 화두로 부상한 시대라는 사실은 대중가요 노랫말 속 사회적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만하다.

이 글에서는 문학·사회적 관점에서 부지불식간 우리의 사회상을

보여준 조용필 노랫말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간과된 사회성을 드러내고, 사회적 메시지의 표현 방식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영미(2003:365-385), 유성호(2021:7-9)가 강조하듯 대중가요는 음악[作曲]과 문학[作詞/作詩]의 조화로 구성된 것이므로 노랫말은 우리의 사회상을 반영한 시편(詩篇)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가요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서는 음악성 외에도 노랫말에 관한 분석(남운, 2009; 장유정, 2012; 이유영·김종갑, 2018; 권용재, 김선진·홍성규, 2019; 김진규·정기인, 2021)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더 기대된다.

## 2. 역사적 순간의 기념

각종 영상 및 인쇄 장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서 역사적 순간을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물은 훗날, 과거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사료(史料)가 된다. 그렇다면 조용필 노랫말에서는 역사적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또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형상화했을까?

### 2.1.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과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20세기 최고의 가수’ 조용필의 공식 데뷔곡으로 일제강점에 의한 이산 및 남북의 이념 대결을 초월한 동포애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노래는 조선일보(1998), KBS 가요대상(1999), MBC FM·한국갤럽(1999), 월간조선(1999)에서 ‘20세기 최고의 노래’로 선정했고,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한류

(韓流)’의 원조격 노래<sup>1)</sup>로 본다. 하지만 대중가요로서의 인지도<sup>2)</sup>에 비해서 노랫말 속 사회적 메시지는 점차 약화되는 듯하여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가 절실해 보인다.

그 원곡은 김해일(본명 김성술, 1946~1971)의 <돌아와요 충무항에>로 황선우가 작곡하고, 작사가 김성술이 노래했다.<sup>3)</sup>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돌아와요 부산항에>와는 음악 스타일이 전혀 다른 노래로 충무항에서의 이별과 그리움을 노랫말로 삼는데, 조용필이 취입하기에 앞서 작곡가에 의해 두 차례의 개사(改詞)가 이루어졌다(구자형, 2019:39-76). 첫 번째는 1972년,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첫 취입했을 때 제목과 노랫말을 부분 수정<sup>4)</sup>한 것이다. 그러나 조용필의 굳 입대와 맞물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획기적인 변화는 19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을 계기로

- 
- 1) 1982년 조용필이 일본 무대에 첫 진출했을 때 큰 반향을 일으켜서 ‘엔카의 여왕’ 미소라 히바리(美空 ひばり, 1937~1989), 덩리권(鄧麗君, 1953~1995) 외 30여 명 이상의 가수가 경쟁적으로 리메이크했다.
  - 2) 현직 작사가와 작곡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월간조선(1999)의 조사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인기 요인을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노래”, “친숙한 멜로디”, “세련된 편곡”, “조용필의 탁월한 가창력”과 같은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 3) 1. 꽃피는 미륵산엔 봄이 왔건만/ 님 떠난 충무항은 갈매기만 슬피우네/ 세병관 등근기 둥 기대여 서서/ 목메어 불러봐도 소리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충무항에 야속한 내 님아 2. 무학새 슬피 우는 한산도 달밤에/ 통통배 줄을 지어 웃음꽃에 잘도 가네/ 무정한 부산 배는 님 실어 가고/ 소리쳐 불러 봐도 간 곳 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충무항에 야속한 내 님아
  - 4) 1.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 봐도 대답 없는 내 님아/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님아 2. 해저문 해운대에 달은 떴는데/ 백사장 해변가에 파도만 밀려오네/ 쌍고동 울어 주는 연락선마다/ 소리쳐 불러봐도 말 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부산항에 보고픈 내 님아

이루어진 두 번째 개사에 의해서이다.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지금의 노랫말은 바로 이때 완성된 것이다.<sup>5)</sup> ‘조총련계 제일동포 모국 방문 사업’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정치·외교적 이벤트로 남북 이산가족의 역사적 첫 상봉으로 기억된다. 이 사업은 비록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무마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나, 민족 화합과 통일의 염원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에 즈음하여 조용필이 재취입한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동안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사의 아픔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 오류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 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고파 목이 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날의 꿈이  
었지/ 언제나 말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 황선우 작곡, 황선우 작사, 〈돌아와요 부산항에(Vol.1, 1980)〉

이 노래는 이산의 아픔과 감격적인 상봉 장면을 차례로 연상시킨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그리운 형제”를 떠나보낸 자, 즉 나의 목소리로써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그리움을 강

5)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호텔 화재로 인해 김성술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개사에 관해 2006년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재협)는 “작곡가 황선우가 가수 김성술 씨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지어 곡을 붙인 노래가 수록된 조용필의 음반을 제작 발표해 작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는 표절>/ 『한겨레』 / 입력 : 2006.03.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57.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57.html))

조했다. “그리운 내 형제”는 곧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상징한다. “목메어 불러 봐도 (‘그리운 형제의’) 대답 없”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이별했던 형제자매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멀어지게 된 민족사적 아픔을 뜻한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동포를 차별하고, 적대시하던 때 “부산향”은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돌아와서는 안 될 곳이었다.

후반부에서는 내 형제자매의 목소리로써 모국을 향한 그리움과 귀국 소감을 이야기했다.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던 “저물결들”은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를 엄금한 당시의 사회상을 비유한다. 30여 년 전, 민족의 이산은 일제강점의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의 갈등과 대결 구도는 남북 분단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광복 이후 재일동포 사회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양분되어 남북의 대리전(代理戰) 양상마저 보이게 되므로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은 “긴긴날의 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모국으로 돌아왔으니, 당시의 소회는 그저 “돌아왔다 부산향에”라는 한마디로써 함축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재일동포 모국 방문 사업’은 이후 ‘이산가족 찾기 운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건대 이 노래는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족 화합과 통일의 염원을 노랫말 속에 담은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남북 갈등이 고착화한 지금의 현실은 <돌아와요 부산향에>의 노랫말 속 사회상과 당시의 대중적 반응을 이끌어낸 역사적 의미를 더욱더 각별한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 2.2. 제24회 서울올림픽과 <서울 서울 서울>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15일 동안 제24회 올림픽

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가 건국한 이후 개최한 최대 규모의 국제 스포츠 대회였다. 당시 기준으로 최다인 159개국, 8,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서울특별시 편, 1990; 박해남, 2016:353-389; 김재우·최지훈, 2018:57-73)고 한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를 기록하였다. 서울올림픽은 국제적으로 ‘성공한 올림픽’이라고 평가하고,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당시 대중가요계에서도 올림픽 유치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노래의 발표가 잇따랐다. 이러한 노래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 준 ‘올림픽 노래’로서 추억된다. 그 당시 대표곡으로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가 있다. 〈아! 대한민국〉<sup>6)</sup>과 〈아침의 나라에서〉<sup>7)</sup>는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우리나라와 서울을 찬양한 노래이다. 이 두 노래에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평화로운 서울’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용된 다수의 미사여구가 돋보인다. 남녀 보컬의 하모니와 웅장한 편곡이 인상적인 〈손에 손잡고〉<sup>8)</sup>의 노랫말은 “세계는 하나다!”라는 올림픽 정신의 구현을 강조하였다.

‘올림픽 노래’에 의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환희와 감격 위주로 전환될 무렵 조용필은 서정성 짙은 〈서울 서울 서울〉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속설처럼 당시 방송 무대의 피날레는 〈서울 서울 서울〉이 장식했다. 그런데 〈서울 서울

6) 김재일 작곡, 박건호 작사, 정수라 노래, 〈아! 대한민국〉, 지구레코드사, 1984.10.

7) 김옥윤 작곡, 박건호 작사, 김연자 노래, 〈아침의 나라에서〉, 지구레코드사, 1986.05.

8) Giorgio Moroder 작곡, Tom Whitlock·김문환 작사, 코리아나 노래, 〈손에 손잡고〉, 폴리그램레코드사, 1988.06.



서울>의 서정적 노랫말과 멜로디는 이따금씩 흥겨운 축제 현장과 어울려 보이지 않기도 했다.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내 가슴에 아름다운 냇물이 흐르  
네/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대/ 빼고  
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 어딘가에 엽서를 쓰던 그녀의 고운 손/  
그 언제쯤 나를 볼까 마음이 서두네/ 나의 사랑을 가져가 버린 그대/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서울 서울 그리움이 남는 곳/ 서울 서울  
서울 사랑으로 남으리/ 워 워 워 Never forget oh my lover Seoul

이별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고/ 차 한 잔을 함께 마셔도 기쁨에 떨렸  
네/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화려한 축제여/ 눈물 속에서 멀어져 가는 그대/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서울 서울 그리움이 남는 곳/ 서울  
서울 서울 사랑으로 남으리/ 워 워 워 Never forget oh my lover Seoul/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서울 서울 그리움이 남는 곳/ 서울  
서울 서울 사랑으로 남으리/ 워 워 워 Never forget oh my lover Seoul/  
서울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 서울 서울 그리움이 남는 곳/ 서울  
서울 서울 사랑으로 남으리

- 조용필 작곡, 양인자 작사, <서울 서울 서울(Vol.10, 1988)>

당초부터 이 노래는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 이 노래와 함께 수록된 <서울 1987년>, <회색의 도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조용필의 10번째 정규 앨범 곳곳에는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의 형상과 장소성을 통해 우리의 사회상을 표현한 노랫말이 주목된다. 1980년부터 매년 신보를 발표한 조용필에게 1988년은 남다른 의미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이때는 조용필이 음악생활 20주년을 맞이한 해이자, 10번째 정규 앨범의 발매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첫 음반으로서의 특별함이 요구되었다.

1988년 5월, 조용필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서울’을 주제로 한 기념음반을 발매한다. 그런데 이 음반 속에서 서울은 찬미의 대상도, 이상적인 도시도 아니었다. 그 대신 ‘서울’의 상징성과 역사적 시공간으로서의 장소성에 주목하여 이곳의 우리와 우리 사회에 관한 인식을 차분한 목소리로 노래했다. 회상적 어조로써 표현한 노랫말에서 “그대”는 곧 서울을 비유한 것으로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지만, “눈물 속에서 멀어져만 가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왜, 이 노랫말 속 화자는 “그대”를 그리워하며 서글퍼졌을까? 그 이유는 조용필이 한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우리 사회가 우울해질 것 같아서”<sup>9)</sup>라고 언급했듯이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축제” 이후 전개될 우리의 사회상에 관한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그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리움의 대상(“Never forget oh my lover Seoul”)으로 인식된다.

요컨대 이 노래는 올림픽 이후 아름다운 서울에서의 우리네 삶이 결코 장밋빛 일색일 수 없음을 예상한 타견이었다고 생각된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 사회는 올림픽 이후 경제적 부침을 거듭하다가 외환위기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 오랫동안 은폐된 사회적 부조리에 관한 전 국민적인 분노와 우울감의 극대화를 경험하게 된다.

### 2.3. 2002 한일월드컵과 <꿈의 아리랑>

2002년의 FIFA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동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

---

9) <칼럼/논단 이낙연 : 조용필 ‘서울...의 승리’>, 『동아일보』, 1993.11.03., 5면.

라와 일본의 20개 축구경기장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년이나 늦은 1994년에 월드컵 유치위원회를 조직했다.<sup>10)</sup> 하지만 당시의 모든 경제·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유치전에 나선 결과,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오히려 일본과의 공동 개최라는 절충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최근까지도 이 대회에서 열광적인 응원전을 펼친 ‘붉은 악마’와 응원 구호였던 “대~한민국”, “꿈은 이루어진다~☆”는 ‘월드컵 4강 신화’의 추억을 상기시켜 준다.

조용필은 <꿈의 아리랑>에 관해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개막 축하곡으로 아리랑의 현대판 버전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장르의 아리랑 노래를 섭렵한 후 ...(중략)... 한(恨)의 정서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는 우리 민족의 희망과 의지를 담았다”고 기자 회견<sup>11)</sup>에서 밝힌 바 있다. <꿈의 아리랑>은 2002년 조용필의 ‘월드컵 성공 기원 비상(飛上)’ 콘서트의 피날레 곡으로 자주 불렸고, ‘한일월드컵 개막 경축 전야제’를 통해 해외로 까지 소개되었다.<sup>12)</sup>

그 누가 말했나 아리랑은 우리의 슬픈 눈물이라고/ 그것은 덧없는 세월  
이려나 아리랑 무지개 뜨려나/ 오~/ 아리랑 고개는 희망의 고개 우리가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월드컵, 2002월드컵」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8367>)

11) <조용필 ‘월드컵 노래’ 발표>, 『경향신문』 / 입력 : 2002.04.11.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0204111913431#c2b](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0204111913431#c2b))

12) <꿈의 아리랑>은 2002년 이후 한동안 잘 불리지 않다가 평양 류경체육관에서 열린 ‘광복 60년 SBS 특별기획 조용필 평양 2005’ 단독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당시 이 공연은 SBS-TV를 통해 2시간 딜레이 중계 방송되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꿈의 아리랑>이 불린 앙코르 무대였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북한 관객은 <꿈의 아리랑>을 처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렴부를 합창함으로써 잠시나마 아리랑으로 하나가 되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하모니를 이루었다.

지켜 나가리/ 눈물은 다시 노래로 변해 널 위해 불려지리라/ 힘겨운 시간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부푼 꿈을 꾸다 오~/ 아리랑 아리랑 아  
 름다운 그곳에/ 아리랑 아리랑 가슴은 꿈을 꾸다/ 아리랑 고개는 사랑의  
 고개 누구나 반겨 주리라/ 한숨은 다시 미소로 변해 세상의 빛이 되리라/  
 힘겨운 시간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부푼 꿈을 꾸다 오~/ 아리  
 랑 아리랑 아름다운 그곳에/ 아리랑 아리랑 가슴은 꿈을 꾸다/ 힘겨운 시  
 간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부푼 꿈을 꾸다 오~/ 아리랑 아리랑  
 아름다운 그곳에/ 아리랑 아리랑 가슴은 꿈을 꾸다/ 아리랑 아리랑 아름  
 다운 그곳에/ 아리랑 아리랑 가슴은 꿈을 꾸다/ 아리랑 아리랑

- 조용필 작곡, 조용필·이애경 작사, <꿈의 아리랑(Vol.18, 2003)>

주지하듯 역사적으로 “아리랑”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그 “고  
 개”는 굴곡 많았던 민족사로 이해된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사는 도  
 입부의 노랫말처럼 “슬픈 눈물” 흘리고 “한숨” 지우면서 “힘겨운 시  
 간”을 묵묵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수난의 삶으로 여겨져 왔다. 조  
 용필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한오백년>, <간양록>, <일편단심  
 민들레야>와 같은 노래를 통해 민족의 정한(情恨)을 처절한 목소리  
 로 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노래에서는 기존의 인식과 확연히 구  
 분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오늘의 우리가 민족사적 대  
 전환기를 맞이했음을 보여 준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일본과의 월  
 드컵 공동 개최가 아닐까 한다. 이미 우리 스스로가 구원(舊怨)을  
 극복했으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었고,  
 지금의 그 누구도 2002 한일월드컵을 부끄러운 과거사로 기억하지  
 않는다. 이 노랫말의 핵심도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고 좌절할 이유  
 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과거의 “눈물”과 “한  
 숨”을 대신하여 “희망”과 “미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시대로 미래를 꿈꾸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사적 자긍심과 희망의 메시지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한류문화와 ‘K-style’류 콘텐츠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3. 반독재와 민주화 열망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는 이전 독재정권에 버금가는 폭정으로 인해 집권 기간 내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군사 정권에 항거하는 집회 현장마다 민중가요가 울려 퍼졌다. 당시 민중가요는 반독재와 민주화 열망이라는 정치적 지향성이 분명했다. 따라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민중가요는 대중성을 지향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 대중가요와의 구별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중가수 조용필은 어떠한 방식으로 반독재와 민주화 열망을 노래하였나?

#### 3.1. 광주민주화운동과 〈허공〉, 〈생명〉

일반적으로 〈허공〉은 실연(失戀)의 아픔을 통속적으로 표출한 트로트 장르의 노래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본래 〈허공〉이 사회 비판적 의도로 창작된 노래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아니,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오랫동안 〈허공〉의 사회적 메시지가 포착되지 않았던 것은 비유와 상징으로써 본뜻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노래의 제목이 가뭇없게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린 민주화의 꿈을 상징한다는 사실은 다음의 신문기사에서 최초로 확인된다.

70년대 말 극에 달했던 유신독재정권의 폭정으로 우리는 질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신음했다. 유신 악법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눈치를 보면서 말조심하는 세상이었다. 10·26이 터졌다. 곧 다가올 것 같던 민주화에 온 국민은 가슴 설레며 기다렸다. 그런데 12·12, 5·18이 일어나면서 그렇게도 고대했던 민주화는 모두 ‘허공’속에 묻혀버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다시 등장했다. 너무 허망했다. 참담했던 심정을 그대로 삭일 수가 없었다. 무언가 속풀이를 해야 견딜 것 같았다. ‘허공’이 제목으로 떠올랐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민주화.’ 당시 공룡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또 서술 퍼런 5공시절 나 자신의 몸보신을 위해 ‘민주화’를 ‘그대’로 대신했다. 이 노래가 그렇게 많이 애창됐던 것은 겉으로는 실연을 노래한 것 같지만 이심전심으로 이런 뜻이 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sup>13)</sup>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여 ‘국민가요’로 인식된 지 햇수로 15년 만에 비로소 노랫말의 본뜻이 공개되었다. 이 노래를 작곡·작사한 정풍송에 의하면 민주화가 허무하게 무산된 현실과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노랫말 속에 담았다고 한다. 이러한 속내를 감안하여 다시금 노랫말을 살펴보면 이 노래의 창작 의도가 반독재와 민주화 열망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잊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13) <일하며 생각하며/정풍송 : 대중가요는 ‘사회’를 노래한다>, 『동아일보』 / 입력 : 1999.09.16.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19990916/7470316/1>)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할 그 약속  
/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 정풍송 작곡, 정욱 작사, 〈허공(Vol.8, 1985)〉

너무나도 아쉬움 가득한 꿈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신군부에 의해 무참히 좌절된 민주화를 뜻한다. 부득이 ‘민주화’를 대신하여 “그대”라고 했으므로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는 곧 ‘1980년 서울의 봄’과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을 은유한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과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의 원관념은 바로 ‘민주화 시대’와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노래는 마치 당의정(糖衣錠)처럼 통속적 노랫말과 트로트로써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감싼 것이 된다. 이것은 신군부의 폭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이자, 대중가요다움을 지킬 수 있게 한 최선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서슬 퍼런 군사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회 비판적 메시지와 저항 정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자유는 없었다.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독재정권의 폭압은 대중가요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방송심의위원회의 ‘음반 사전심의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 수단으로 악명 높았다(양삼석, 2010). 뿐만 아니라 창작자로 하여금 자체 검열의 고통과 자괴감마저도 느끼게 했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노래는 금지곡으로 지정하여 음반의 유통, 방송, 공연을 불허했다. 이것은 곧 해당 노래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 조용필도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인 참혹상에 분노하여 〈생명〉을 작곡했는데, 〈허공〉과 마찬가지로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 방식이 필요했다.

강현 :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트랙은 <못찾겠다 꾀꼬리> 바로 뒤에 놓인 유장한 템포로 설정된 비감 어린 애가(哀歌) <생명>인데, 이 노래는 당신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보더라도 극히 보기 드문 당대의 사회상에 대한 굴절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용필 : 그렇다. 그것은 명백히 광주의 학살에 대한 분노를 담은 곡이다. 나는 체질적으로 정치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수감 중에 교도소 개구멍에서 내 노래를 듣고 이 놈이 어떤 놈인지 궁금해했다는 김지하 씨를 만난 적도 있고, 그런 인연 중에 내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전옥숙 여사와 같이 노래를 만들었다. <생명>은 내 나름대로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4집에 실린 그 노래는 몇 번에 걸쳐 수정 지시를 받아 고쳐야 했기 때문에 원본과는 거리가 멀었다.<sup>14)</sup>

지금의 노래는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나 수정된 것이다. 조용필은 무엇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때의 수정 지시는 노랫말을 고쳐 쓰라는 것이었으리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사회적 메시지의 표현이 오직 말과 글로써 완성되지 않듯 대중가요에는 노랫말 외에도 다양한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 당시 조용필은 표현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서 독재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나름대로 맞서고자 했다.

저 바다 애타는 저 바다/ 노을바다 숨죽인 바다/ 납색의 구름은 얼굴  
 가렸네 노을이여 노을이여/ 물새도 날개 접었네/ 저 바다 숨 쉬는 저 바다  
 검은 바다 유혹의 바다/ 은색의 구름은 눈부시어라 생명이여 생명이여/  
 물결에 달빛 쏟아지네/ 애기가 달님 안고 파도를 타네/ 애기가 별님 안고

14) 「리뷰/대담 조용필 VS 강현 : 歌王 조용필-피와 땀이 빚어낸 뜨거운 연대」, 『ETERNALLY』2호, 조용필 팬클럽 '이터널리', 1997.07.21.-23.



물결을 타네/ 대지여 춤춰라 바다여 웃어라/ 아~ 시간이며 아~ 생명이며  
 생명이며 저 바다 애타는 저 바다/ 노을바다 숨죽인 바다/ 납색의 구름은  
 얼굴 가렸네 노을이며 노을이며/ 물새도 날개 접었네/ 저 바다 숨 쉬는  
 저 바다 검은 바다 유혹의 바다/ 은색의 구름은 눈부시어라 생명이며 생명  
 이며/ 물결에 달빛 쏟아지네/ 애기가 달님 안고 파도를 타네/ 애기가 별님  
 안고 물결을 타네/ 대지여 춤춰라 바다여 웃어라/ 아~ 시간이며 아~ 생명  
 이며 생명이며

생명이며~ 생명이며~

- 조용필 작곡, 전옥숙 작사, <생명(Vol.4, 1982)>

조용필은 이 노래가 “광주의 학살에 대한 분노를 담은 곡”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그렇지만 의미심장해 보이는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지금의 노랫말에서는 본뜻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 “원본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했지만 굳이 노랫말을 해석하자면 어둠과 침묵만이 가득하던 세상에 불현 듯 서광이 비추면서 상서로운 기운이 솟아났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또 무슨 이유로 갑자기 “생명”을 희구하게 되었는지 아리송하다. 그러므로 조용필의 복안, 즉 노랫말 이외의 표현 방식을 감안하여 본뜻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각화한 표현 방식은 공중과 방송보다는 상대적으로 검열이 적은 공연 무대를 위주로 적용되었다. 그 첫 번째는 노랫말로 밝힐 수 없었던 당시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노래의 러닝타임은 5분 29초로써 추상적인 노랫말을 장엄한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특히 원곡을 8분 이상으로 편곡한 음악을 공연장에서 듣노라면 한편의 민중 서사시를 보는 듯하여 일순간 숙연해진다. 더불어 조용필이 이 노래에서 구사한 창법 또한 분노와 반감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른 조용필의 목소리는 모창을 불허하

는 절창으로서 살육의 현장에서 산화한 민주 영령의 넋을 위무한다.

두 번째는 폭압에 맞서 죽음도 불사한 광주 시민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주의 사회의 탄생을 맞이하게 될 역사적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무대 연출 방식이다. 이 노래가 불릴 때면 공연장은 암전 상태가 되어 어둠의 세상으로 바뀐다. 그리고 장엄한 음악과 함께 무대 뒤편의 스크린 상에 칠후 같은 밤바다를 엄습하는 거센 파도와 폭풍우가 쏟아지는 장면이 몇 차례 오버랩하면서 공포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진 밤물결 사이로 새 희망을 상징하는 햇살이 스며들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던 심장 박동 소리를 갓난아이의 힘찬 울음소리로 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반독재와 민주화 열망은 결코 사멸하지 않는다는 희망과 민중의 생명력을 보여 준 것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이 노래를 공연 레퍼토리에 포함하여 본뜻을 부단히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이 노래가 발표된 지도 벌써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조용필은 최근까지도 각별한 애착을 갖고 즐겨 부른다. 이것은 역사적 상처를 망각하지 않기 위한 신념의 표출인바, 민주화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데 그 나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3.2. 6·10 민주항쟁과 〈서울 1987년〉

〈서울 1987년〉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이나, 〈서울 서울 서울〉과 함께 1980년대 후반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대표곡으로서 손색이 없다. 전옥숙이 노랫말을 쓴 〈서울 1987년〉은 1987년 6월 10일의 국민대회, 즉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과 마침내 성취한 민주주의 사회의 개막을 시화(詩化)한 것이다. 앞서 발표한

〈생명〉이 심의로 인해서 본뜻을 감추고 추상적인 노랫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은 〈서울 1987년〉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된다. 민주화 과정을 꽃나무의 성장 단계에 빗대어 표현한 노랫말은 정치사적 변화상을 함축한 것이다.

바람이여 분다 혼들의 합성이 올렸네 사람들아/ 산고의 고통 우리 알았네/ 비바람 몰려오는구나 먹구름 안고/ 김푸른 바다 노도에 우네/ 짝들은 소리 내 그 꽃을 재촉을 하구나/ 계절은 그녀의 가슴을 앓게 했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우리 우네/ 비야 비야 멈추어다오/ 바람이여 멈추어다오

바람이여 분다 혼들의 합창이 들린다 사람들아/ 산고의 고통 찢겨 나가네/ 비바람 불어오는구나 희망을 신고/ 영원의 바다 눈앞에 있네/ 잎들은 푸르려 그 꽃은 색깔을 품었네/ 수줍은 그녀의 가슴이 설레인다/ 달님도 웃고 별님도 웃고 우리 웃네/ 비야 비야 멈추어다오/ 바람이여 멈추어다오

비가 내려 대지는 숨쉬고/ 바람이 불어 꽃씨는 뿌려졌네/ 비가 내려 대지는 숨쉬고/ 바람이 불어 꽃씨는 뿌려졌네

조용필 작곡, 전옥숙 작사, 〈서울 1987년(Vol.10, 1988)〉

대구법으로 구조화된 노랫말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정확히 나누어진다. 이것은 6·10 민주항쟁의 경과와 당시의 감회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적합한 표현 방식으로 노랫말의 본뜻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먼저 노랫말의 전반부는 반독재와 민주화 열망이 가득했던 역사의 현장과 격동기 사회상을 묘사한 것이다. 1987년 5월부터 잇따른 민주 투사의 숭고한 희생에 의해 촉발한 민주화의 열망은 전 국민의 가슴에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독재 타도’와 ‘호헌 철폐’를 외치는 “혼들의 합성”이 가득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고통과 두려움이 적지 않았다. 독재정권은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강경 조치를 선언하면서 ‘제2의 광주사태’를 획책하고자 했

다. 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 때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이 “썩”트고, 어느덧 자라나서 방방곡곡마다 민주화 “꽃”이 만개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민주화를 성취한 기쁨과 앞으로 펼쳐질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6·10 민주항쟁 결과, 전 국민의 바람대로 민주적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되찾았다. “흔들의 합창”이 전국에 울려 퍼졌고, “산고의 고통”으로부터도 벗어났다. 국민민주권주의를 몸소 실현한 6·10 민주항쟁은 전 국민적 자긍심의 원천이자 환희의 순간이었다. 다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기에 ‘민주화’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무성해질 민주화 “잎들”과 “꽃”처럼 성숙해져서 누구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였다.

#### 4. 정치·경제 현실과 시대 공감

20세기 말~21세기 초, 조용필은 몇 편의 노랫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반응은 조용필의 사회적 관심과 통찰력에서 기인하는 바, 조용필 노랫말의 사회성을 간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조용필의 노래에서 주목한 사회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반응하였나?

##### 4.1. 정쟁(政爭)과 〈一聲(일성)〉

〈一聲(일성)〉은 정쟁과 부정 축재를 일삼는 정치권을 향한 민의(民意)를 표출한 노래로 국익보다 사익을 좇는 정치세력을 ‘한마디

말'로써 비판한 노랫말이 압권이다.

조용필 : 요즘 한국 사회의 심리는 어떤가요? 노래 만들 때 생각해보고 싶은데.

송호근 : 마디마디 분절돼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모두 차갑고 사나워졌어요. ... 중략 ... 바로 조 선배의 감싸 안는 노래가 아쉬울 때예요. 심금을 울린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닌가요? 조 선배 노래가 누구보다 사회성이 짙어서 하는 말이죠. 물론 조용필표 정서로 푹 절인 것들이지만.

조용필 : 그런 충동을 많이 느껴요. 반드시 사회적인 것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절실한 것들, 예를 들면 사랑, 친구, 시대와 사회에 대한 곡을 만들고 싶기는 해요.

송호근 :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노래도 있잖아요.

조용필 : 아, <일성(一聲)>. 18집(2003년)에 있는 노래죠. 오전 3시 반쯤 됐나, 샤워 끝내고 뉴스 보는데 정치권에서는 싸움질만 하고, 뭘 해 먹었다 이런 얘기만 나와서 그 자리에서 만들었어요.

송호근 : 코언이나 U2의 곡들은 사회성이 짙고 양가주망(적극적인 사회참여)을 표방하죠. 조 선배 노래의 실체는 양가주망적인데, 그게 예술적 감성과 자유로움에 절여져 보다 폭이 넓고 울림이 커집니다. 격식을 깨는 사회성, 집착하지 않는 사회성, 그것을 예술성으로 승화시키는 영혼 같은 거.

조용필 : 너무 벽찬 일이지만 열망은 있어요.<sup>15)</sup>

<일성>은 정치권을 비판하고자 작심하고 만든 노래이다. 평소 조용필의 성격과 달리,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노랫말은 성난 민심(民心)을 반영 결과로 이해된다. 이 노래에서 “우리”는 “그들” 때문에

---

15) <조용필·송호근, 노래와 시대 정서를 논하다>, 『중앙일보』 / 입력 : 2006.12.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420#home>)

가슴 아파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그 누구인가?” 불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어디를 봐도 가슴 아픈 사연들만 들리네/ 그들은 과연 그 누구인가 슬퍼진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린 꿈도 희망도 많았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들은 누구/ 하늘과 땅이시여 그들을 살피소서/ 야야야 웃지마라 야야야 우리들은/ 야야야 꿈이 있어 야야야 희망 있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린 꿈도 희망도 많았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들은 누구/ 하늘과 땅이시여 그들을 살피소서/ 야야야 웃지마라 야야야 우리들은/ 야야야 꿈이 있어 야야야 희망 있어/ 야야야 웃지마라 야야야 우리들은/ 야야야 꿈이 있어 야야야 희망 있어

- 조용필 작곡·작사, 〈一聲(Vol.18, 2003)〉

그동안 “우리”는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오랫동안 우리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모두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룩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비웃는 듯하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분노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할 만도 했다. 하지만 이 노랫말은 마치 조선시대의 사설시조처럼 “그들”을 풍자하고 조롱함으로써 비판의 강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하늘과 땅이시여, 그들을 살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정치권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회, 천지신명에게 국운을 의탁하는 행위는 옛날 풍자극에서나 보던 장면이다.

심지어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실시간으로 증계되기까지 한다. 그 정체성이 의심되는 “그들”, “그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상황은 시쳇말로 ‘우프다(=우습고도 슬프다)’고 말할 수 있겠다.

비록 이토록 ‘웃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역량을 보여 주는 상징어이자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뜻한다. 우리 사회는 ‘한마디 말’로 부족하면 ‘하나된 목소리’로서 정치권을 심판해 왔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10·16 부마민주항쟁’ 등 우리에게는 민주화의 “꿈”과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한 “희망”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역사를 망각한 “그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정치 토론에 열중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맞이하고 싶은 기대감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 4.2. 변혁의 시대와 〈친구의 아침〉, 〈어느 날 귀로에서〉

〈친구의 아침〉과 〈어느 날 귀로에서〉를 발표한 때는 경제적 위기의 심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개혁이 화두로 급부상한 시기였다. 변혁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바꾸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불안감, 무한 경쟁에 의해 가중된 소외감의 해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친구의 아침〉과 〈어느 날 귀로에서〉는 우정을 매개로 하여 기성세대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노래이다. 〈친구의 아침〉의 경우,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을 받는 동안 통절하게 느낀 고통과 두려움이 노랫말의 문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당시의 사회상은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므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허물어진 꿈들과 두렵던 아침 너머/ 보았지 눈물 땀 미소로 내 앞의  
너를/ 안부마저 묻기도 정말 미안한 지금/ 친구야 기대보기로 해 지친 어  
깨를/

우리는 달려왔지 그저 최선을 다해/ 돌아볼 여유도 없이 모든 걸 던진  
채/ 우리가 슬플 땐 쉬기로 해 잠시/ 일어날 땐 또 다른 시작이 있어/ 찬란  
한 태양이 밤을 지나올 때/ 너의 아침은 벌써 저기에

우리는 달려왔지 그저 최선을 다해/ 돌아볼 여유도 없이 모든 걸 던진  
채/ 우리가 슬플 땐 쉬기로 해 잠시/ 일어날 땐 또 다른 시작이 있어/ 찬란  
한 태양이 밤을 지나올 때/ 너의 아침은 벌써 저기에

- 박강영 작곡, 박주연 작사, 〈친구의 아침(Vol.17, 1998)〉

도치법의 사용이 두드러진 노랫말은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려면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면서 인내할 것을 역설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첫 몇 소절은 이 노래의 창작 배경을 잘 보여 준다. “지금”은 온갖 부정적인 소식과 함께 불안감을 고조하는 용어가 일상어로 사용될 정도로 경제 위기가 심각했다. 국가 부도는 “친구의 아침”을 해고와 실업이 시작되는 공포의 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부터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언어의 힘을 신봉하는 사회로 급변하였다. 아마도 이때부터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누군가의 상처를 악화시키는 가학행위로 인식된 시점이기도 했다. 모처럼 용기 내어 얼굴 마주한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는 “모든 걸 던진 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해” 온 중·장년층을 상징한다. 그 “친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내”가 보인 반응은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건네는 것뿐



이었다. 즉 인내(忍耐)가 최선의 대응책으로 여겨질 정도로 외환위기 당시 우리 사회는 위기, 그 자체였다. 외환위기 이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외국 속담은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실, 우리는 운명 공동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었다.

그 이하의 노랫말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두 번째 대응책이 보인다. 그것은 곧 잠시 멈추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슬플 땐 쉬기로 해 잠시”는 개인적 성찰의 시간이라는 뜻과 함께 사회적 혁신 기회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대응책은 점차적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두렵던 아침”에도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태양”이 찾아온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다시금 돌이켜보니 당시 우리 사회는 해묵은 구태와 각종 부정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된다. 경제 위기의 극복과 사회 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발전상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본다.

〈어느 날 귀로에서〉도 우리 사회상의 일면을 보여 주는 노래이다. 변혁의 시대를 살아온 어느 가장의 소회를 피력한 노랫말<sup>16)</sup>은 서울대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가 썼다. 작사가는 “귀로”가 어느 중·장년 가장의 귀갓길(歸路)을 뜻한다고 밝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하면 노년기에 이른 중·장년층의 귀로(歸老)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당시의 중·장년층은 우리 역사상 최대 호황과 최악의 경제 위기를 동시에 체험한 기성세대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노래에서 “나”는 기성세대의 대변자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만 “귀로를 서성거리”고 있다.

---

16) 『Opinion/송호근 칼럼 : ‘어느 날 귀로에서’』, 『중앙일보』 / 입력 : 2013.05.07.  
(<https://www.joongang.co.kr/article/11441612>)

돌아오는 길목에 외롭게 핀 하얀 꽃들/ 어두워진 그 길에 외롭게 선  
가로등이/ 빛나는 기억들 울렁이던 젊음 그곳에 두고 떠나야 하네/ 이별에  
익숙한 작은 내 가슴 속에 쌓이는 두려움 오~/ 내 푸른 청춘에 골짜기에는  
아직 꿈이 가득해 아쉬운데/ 귀로를 맴도는 못 다한 사랑 만날 수는 없지만  
/ 이제는 알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목에 기다리던 그대 모습/ 어두워진 그 길에 나를 맞는 그  
대 미소/ 화려했던 시간들 울고 웃던 친구들 그곳에 두고 떠나야 하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의 추억을 아파하지 마라 오~/ 나는 왜 귀로를  
맴돌고 있나 아직 꿈이 가득해 그 자리에/ 나는 왜 귀로를 서성거리나 돌이  
킬 수 없지만/ 이제는 알 것 같은데

나는 왜 귀로를 맴돌고 있나 있나 서성거리나/ 내 푸른 청춘에 골짜기  
에는 아직 꿈이 가득해 아쉬운데/ 나는 왜 귀로를 맴돌고 있나 아직 꿈이  
가득해 그 자리에/ 나는 왜 귀로를 서성거리나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조용필 작곡, 송호근 작사, <어느 날 귀로에서(Vol.19, 2013)>

어느 날 귀로에서 방황하던 “나”는 결국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주목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귀로에서 방황하는 기성세대가 많아졌  
다는 사회상이다. 기성세대가 노랫말에 공감하며 반응한 이유는 여  
럿인데, 그중에서 “나”의 속내를 드러낸 노랫말도 한몫을 톡톡히 했  
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옛날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은 것이 많아진 사실과 은퇴할 때가 되었다는 현실을 안다. 개인  
적으로는 신세대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지만, 사회적  
으로는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쉬움  
이 가득하다고 한다. 누구처럼 ‘사오정 오류도’라고 자조하며 의연하  
게 살아갈 수도 있으련만, 여전히 “나는 왜 귀로를 서성거리나?” 그  
이유는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전 필자는 팔자에 없는 작사가로 데뷔했다. 순전히 조용필 씨 덕분이었다. 대선이 한창이던 작년 12월 이숙한 저녁에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웬 반가운 호출인가 싶었는데, 건네받은 것은 생소한 멜로디 가락이었다. ‘한번 해봐’가 팁의 전부였다. ... 중략 ... 마침 타고했던 책의 정서와 그 가락이 융합했고, ‘귀로’ 가사가 탄생했다. 2주 전, 쇼케이스에서 조용필의 가창력을 타고 세상 밖으로 분출한 그 노래는 전율이었다. 무고한 중년들의 눈이 젖었다. 작은딸이 친구에게서 온 문자를 보여줬다. ‘귀로 듣고 아빠가 자꾸 울어.’ ... 중략 ... 내가 붙인 가사는 탈주하는 그를 잠시 불러 세운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 중략 ... 미학으로 탈주하는 조용필에게 사회적 서정성을 입힌 거다. 조용필은 45년 쌓은 가요의 역사를 지고 아무도 답사하지 않은 길을 외롭게 가고 있다.<sup>17)</sup>

이 노래를 발표한 2013년은 조용필이 만 63세가 되던 해로 데뷔 45주년을 맞이한 때였다. 그런데도 조용필의 음악은 예나 지금이나 탈신도주(脫身逃走)하느라고 여념이 없다. 이 노래가 포함된 신보의 발매에 앞서 개최한 쇼케이스 현장<sup>18)</sup>은 생애 최초로 열아홉 번째 앨범을 발표한 조용필을 여전히 ‘젊은 오빠’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었다. ‘용필이 오빠’의 등장은 기성세대에게 모처럼 자신감과 용기를 되찾는 자극제가 되었다.

노랫말과 후일담의 경우,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며 갈등하던 기성세대의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된다.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현실에 안주(安住)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17) <Opinion/송호근 칼럼 : ‘어느 날 귀로에서’>, 『중앙일보』 / 입력 : 2013.05.07. (<https://www.joongang.co.kr/article/11441612>)

18) 2013년 4월 23일,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프리미어 쇼케이스-헬로’는 NAVER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조용필 19집 쇼케이스 인터넷 중계 25만명 관람>, 『연합뉴스』 / 입력 : 2013.04.24. (<https://www.yna.co.kr/view/AKR20130424196900005?input=1179m>)

이고, 나머지 하나는 현실로부터의 탈주(脫走)였다. 탈주와 안주는 생활 방식의 차이일 뿐, 그 우열이나 가치를 논할 수 없다고 본다. 더군다나 인생행로는 조용필의 음악적 행보처럼 탈주로만 일관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이탈을 적극 독려하는 듯한 분위기로 급변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어느새 은퇴기를 맞이한 기성세대는 “귀로를 서성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래서인지 그 속마음을 담은 노랫말은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로 인식되었고, 끝내 어느 중년 가장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5. 맺음말

이 글은 조용필의 노래 가운데에서 사회성을 지닌 노랫말을 위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가요에 반영된 사회상을 파악하고, 사회적 메시지의 문학적 표현 방식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조용필은 공식 데뷔곡 〈돌아와요 부산항에〉로부터 최근작 〈어느 날 귀로에서〉에 이르기까지, 음악 활동기 전 기간 동안 줄곧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랫말로써 대중과 소통하였다. 그래서 조용필 스타일, 음악적 스펙트럼의 다채로움 못지않게 그 노랫말을 통해 전해 준 사회적 메시지 또한 다양한 내용으로 가득해질 수 있었다. 어쩌면 오늘날 ‘가왕 조용필’이라는 칭호는 오랫동안 대중음악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음악을 선사하고, 다양한 노랫말로서 대중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표명한 가수에 대한 상찬(賞讚)이 아닐까 싶다.

이 글에서 파악한 조용필 노랫말 속 사회상과 표현 방식을 요약·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아와요 부산항에〉, 〈서울

서울 서울), 〈꿈의 아리랑〉은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노래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경우,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을 기념한 노래로 일제강점에 의한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남북의 이념 대결을 초월한 민족 화합과 통일의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서울 서울 서울〉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장소성에 주목하여 올림픽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상에 관한 우울한 전망을 보여 준다. 그 노랫말처럼 실제로 우리 사회는 올림픽 이후 경제 불황을 거듭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과 함께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쾌거를 이룩한다. 이때를 기념하기 위한 노래가 바로 〈꿈의 아리랑〉이다. 이 노래는 민요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의 민족사가 대전환기를 맞이했음을 확신한다.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조에 기초한 노랫말은 민족사적 자긍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허공〉과 〈생명〉 그리고 〈서울 1987년〉은 반독재와 민주화 열망을 담은 노래이다. 이 세 편의 노래는 대중가요다움을 지키면서 독재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맞선 것인 바, 민중가요의 표현 방식과 좋은 대비가 된다. 이 가운데 〈허공〉과 〈생명〉은 ‘1980년 서울의 봄’과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방송심의위원회의 검열로 인해 비유와 상징으로써 본뜻을 감추어야 했다. 그러다가 훗날 〈허공〉이 가뭇없게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린 민주화의 꿈을 상징한다는 것, 〈생명〉이 신군부의 폭압과 광기에 맞서 싸운 민주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화의 씨앗이 잉태된 역사적 순간을 은유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1987년〉은 1987년의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과 마침내 성취한 민주주의 사회의 개막을 노랫말로 삼는다.

셋째, 〈일성〉은 정치권을 향한 성난 민심을 대변한 노래이고, 〈친

구의 아침》과 〈어느 날 귀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사회상을 맞이한 중·장년층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먼저 한마디의 말로 정치권을 신랄하게 풍자한 〈일성〉은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민의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줌으로써 정치의 본질과 정치인의 책무를 되돌아보게 한다. 〈친구의 아침〉의 “친구”와 〈어느 날 귀로에서〉 서성이던 “나”는 모두 중·장년층 가장이었는데,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른 불안감과 소외감을 보여 준 진솔한 노랫말에 공감하면서 마음의 위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조용필 노랫말에 관한 관심이 그의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우선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조용필의 노래 중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 상당수라는 것, 몇몇 곡은 대중적 인지도에 비해서 노랫말을 주목하지 못한 점, 또 어느 경우에는 비유와 상징으로써 본뜻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그리고 조용필은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용필 노랫말 속 사회적 메시지의 대중적 수용 및 인식 양상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살피지 못한 조용필 노랫말 가운데에서 사회상을 반영한 노래, 예컨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춘남녀의 심리 상태를 통찰한 〈마도여〉, 직장 내 구조 조정으로 인해 동료를 잃고 괴로워하는 〈남겨진 자의 고독〉 등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미처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와 함께 앞으로 조용필 노래와 동시대에 발표된 다른 노랫말과의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풍성한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구자형. 2018. 『음악과 자유가 선택한 조용필』, 푸른산.
- 김익두. 2010. 『상아탑에서 본 국민가수, 조용필의 음악세계-정한의 노래, 민족의 노래-』, 평민사.
- 김창남. 1991. 『삶의 문화, 희망의 노래』, 한울.
- 서울특별시 편. 1990.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 백서: SEOUL 1988』.
- 유성호. 2021.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 도서출판 작가.
- 허영진. 2020. 『학문 탐구 대상으로서 조용필 노래의 언어』, 한국문화사.
- 홍호표. 2008. 『조용필의 노래, 맹자의 마음』, 동아일보사

### 2. 학회지 논문

- 김선진 · 홍성규. 2019. 「1980년대 가수 조용필 음악 가사의 특징」, 『한국음악문화연구』 14, 한국음악문화학회: 31-59.
- 김재우 · 최지훈. 2018. 「88 서울올림픽의 유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3권 제4호, 한국체육사학회: 57-73.
- 김중신. 2016. 「그룹 ‘들국화’ 노랫말의 시학적 의미」, 『문학교육학』 50, 한국문학교육학회: 175-196.
- 김진규 · 정기인. 2021.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노랫말 속 사랑의 의미」, 『대중음악』 통권 28호, 한국대중음악학회: 137-170.
- 남윤. 2009. 「대중가요에 나타난 낭만성 연구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39, 청람어문교육학회: 399-419.
- 박애경. 2018. 「장소에 새긴 노래, 노래에 새긴 장소 -동물원의 김창기론 -」, 『인문과학』 112,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1-57.
- 박해남. 2016. 「1988 서울올림픽과 시선의 사회정치」, 『사회와 역사』 110, 한국사회사학회: 353-389.

- 양삼석. 2010. 「음악의 정치윤리적 독해 -한국 권위주의 정권하의 대중가요 통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23, 한국윤리교육학회: 221-227.
- 이영미. 2003. 「문학교육과 시가문학으로서의 대중가요», 『국어교육학연구』 17, 국어교육학회: 365-385.
- 장유정. 2012. 「1970-80년대 한국 대중가요 가사의 특징 -공중파 방송 인기 곡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24권 24호, 한국공연문화학회: 79-107.

### 3. 신문 및 잡지 기사

- MBC FM · 한국갤럽(1999), <20세기 최고의 가수 조용필, 20세기 최고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 『중앙일보』 / 입력 : 1999.12.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54875#home>)
- 月刊朝鮮(1999), <20세기 한국 최고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 최고의 가수 조용필>,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 입력 : 1999.11.10.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19991110003>)
- 조선일보(1998), <건국 이후 가수 베스트 NO.1 조용필> / 『조선일보』 / 입력 : 1998.07.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07/21/1998072170307.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07/21/1998072170307.html))
- KBS 가요대상(1999), <20세기 최고 가수 조용필>, 『한경뉴스』 / 입력 : 1999.12.31.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9123101371>)
-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는 표절>, 『한겨레』 / 입력 : 2006.03.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57.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57.html))
- <Opinion/송호근 칼럼 : ‘어느 날 귀로에서’>, 『중앙일보』 / 입력 : 2013.05.07. (<https://www.joongang.co.kr/article/11441612>)
- <리뷰/대담 조용필 VS 강현 : 歌王 조용필 -괴와 땀이 빚어낸 뜨거운 연대->, 『ETERNALLY』 2호, 조용필 팬클럽 ‘이터널리’, 1997.07.21~23.
- <일하며 생각하며/정풍송 : 대중가요는 ‘사회’를 노래한다>, 『동아일보』 / 입력 : 1999.09.16.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19990916/7470316/1>)



- <조용필 ‘월드컵 노래’ 발표>, 『경향신문』 / 입력 : 2002.04.11.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0204111913431#c2b](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0204111913431#c2b))
- <조용필 · 송호근, 노래와 시대 정서를 논하다>, 『중앙일보』 / 입력 : 2006.12.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420#home>)
- <조용필 19집 쇼케이스 인터넷 중계 25만명 관람>, 『연합뉴스』 / 입력 : 2013.04.24. (<https://www.yna.co.kr/view/AKR20130424196900005?input=1179m>)
- <칼럼/논단 이낙연 : 조용필 ‘서울...의 승리’>, 『동아일보』, 1993.11.03., 5면.

#### 4. 음반

- 조용필(Vol.1), 황선우 작곡, 황선우 작사, <돌아와요 부산항에>, 지구레코드사, 1980.03.
- \_\_\_\_\_(Vol.4), 조용필 작곡, 전옥숙 작사, <생명>, 지구레코드사, 1982.05.
- \_\_\_\_\_(Vol.8), 정풍송 작곡, 정옥 작사, <허공>, 지구레코드사, 1985.11.
- \_\_\_\_\_(Vol.10), 조용필 작곡, 양인자 작사, <서울 서울 서울>, 지구레코드사, 1988.05.
- \_\_\_\_\_(Vol.10), 조용필 작곡, 전옥숙 작사, <서울 1987년>, 지구레코드사, 1988.05.
- \_\_\_\_\_(Vol.17), 박강영 작곡, 박주연 작사, <친구의 아침>, YPC, 1998.10.
- \_\_\_\_\_(Vol.18), 조용필 작곡 · 작사, <一聲(일성)>, YPC, 2003.09.
- \_\_\_\_\_(Vol.18), 조용필 작곡, 조용필 · 이해경 작사, <꿈의 아리랑>, YPC, 2003.09.
- \_\_\_\_\_(Vol.19), 조용필 작곡, 송호근 작사, <어느 날 귀로에서>, YPC, 2013.04.

## Social Aspects of and Literary Expressions in Cho Yong-Pil's Lyrics

Hur, Young Ji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social nature of Cho Yong-pil's lyrics and examine the ways social aspects are expressed and messages reflected in Korean popular song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ho's songs such as <Come Back to Busan Port>, <Seoul, Seoul, Seoul>, and <Arirang in My Dream> were written to commemorate historical moments. <Come Back to Busan Port> offers lyrics reflecting the pain of family separation due to the Japanese occupation, national unity, and his wish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eoul, Seoul, Seoul> focuses on the placeness of Seoul and paints a depressing outlook for the social aspects that the nation would face after the Seoul Summer Olympic Games. <Arirang in My Dream> reinterprets the Arirang folk song that represents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suffering, indicating that the history of Korea faces a grand turning point. Secondly, <The Empty Sky>, <Life>, and <1987 of Seoul> reflect people's aspirations for anti-autocracy and democratization. <The Empty Sky> and <Life> are set against the backdrop of "Seoul's Spring in 1980" and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of May," depicting the dream of democratization that was lost in the "empty sky" and the noble spirit of sacrifice of democratic souls. The lyrics of <1987 of Seoul> talk about the historical site of a democratic protest on June 10 and the beginning of the democratic society that the Korean people finally won. Lastly, <Ilseong> represents people's anger toward the political world. Its lyrics are impressive for their harsh political satire. <My Friend's Morning> and <One Day on the Way Back Home> talk frankly about the anxiety and alienation of the middle aged and the older generations that faced a rapidly changing social situation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hese findings show that many of Cho Yong-pil's songs contain social messages in their lyrics, that the lyrics of his songs did not enjoy as much attention as their popular awareness, that it was inevitable for him to hide his original intentions with literary expressions,

and that he continued to deliver his social messages.

Key words : Cho Yong-pil, popular song, lyrics, social aspect, social message, literary expression

논문 투고일: 2022년 3월 1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2년 5월 17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30일